

• 요한복음 19:28, 30

“내가 목마르다”(요 19:28).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.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. ‘죽음’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(히 2:14-15). 제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(롬 3:10-12). 모두가 자기 죄로 인해 죽습니다. ‘죄 없으신’ 예수님만이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.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(히 4:15). 예수님도 아프시고, 힘드시고, 목마르셨습니다.

“다 이루었다”(요 19:30).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위대한 선언입니다. 예수님이 죽음 직전에 ‘다 이루었다’고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. 끝이 아닙니다. 『메시지』 성경(영문)의 표현이 더 와 닿습니다. “It's done... complete.”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실 모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리는 것은 당연합니다.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.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. 십자가로 인해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.

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? 이에 쓰인 헬라어는 ‘테텔레스타이’입니다. 이 말은 4가지 경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. 첫째, 종이 주인이 맡긴 일을 다 마쳤을 때, 둘째, 제사장들이 제물을 검수하여 흠 없고 온전한 제물임을 확인했을 때, 셋째,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완성했을 때, 넷째, 상인들이 값을 다 지불했을 때 ‘테텔레스타이!’라고 외쳤습니다.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. 흠 없고 온전한 제물로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으며,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(히 9:26).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사역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아름답게 완성된 것입니다.

예수님의 십자가는
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?

- ① 죽음, 슬픔, 고통, 눈물 등의 상정일 뿐입니까?
- ②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습니까?